

불자 세상보기



이도흠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설날이다. 설빔으로 갈아입고 조상께 차례를 지내고 웃어른께 세배하고, 가족이 모여 떡국을 먹고 새해의 소망을 빌며 덕담을 나누는 날이다.

새로운 희망으로 가슴 가득히 흐트하고, 가족과 함께 웃놀이를 하고 술을 마시며 새록새록 정과 사랑이 샘솟는 날이다. 이를 함께 누리고자 멀리서, 때로는 10시간 이상의 교통체증 속의 운전은 마다하지 않고 고향으로, 어머니 품으로, 조상들의 선영으로 달려간다.

하지만, 우리의 기쁨이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올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도 많다. 우리가 떡국을 먹을 때 라면조차 먹지 못하는 배고프다고 우는 자식을 앞에 놓고 피눈물을 흘릴 어머니들이 있다.

우리가 따스한 온돌방에서 가족들과 웅기종기 모여 이야기꽃을 피울 때 얼음장과

같은 지하도에 라면 박스 종이 하나 걸쳐 놓고 오들오들 떨며 긴 겨울밤을 지새워야 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고서 우리는 마냥 행복할 수 없다.

신자유주의는 실제로는 빈곤의 세계화를 촉진시켰다. 1%의 배는 터질 정도지만, 99%는 먹고 살기 힘들어졌고, 20% 정도는 굶주려 죽을 위기에 있다.

인류 가운데 13억 명이 하루에 1달러도 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라면 해도 900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같은 일을 하고도 절반의 임금밖에 받지 못한 채, 그것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생계를 잇고 있다.

100만 명 가량의 이주노동자들이 우리가 포기한 일들을 열악한 상황에서 민족차 별까지 받으며 일하고 있고, 그 중 거의 20만 명이 달하는 불법이주 노동자들은 그 일조차 하지 못한 채 강제 추방되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 가운데 벌써 19명이 목숨을 끊었고, 상당수 노동자들이 정신병 치료를 받고 있다. 1월 20일로 용산참사 3주년을 맞았건만, 아무 죄없이 구속된 철거민 8명은 시린 감옥에서 겨울을 나야 한다.

이들의 고통에 우리는 책임이 없는 것일까. 우리가 여기서 정년 깨달아야 할 점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모든 고통이 사회적이라는 점이다.

불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고통을 직시한다. 생노병사에 더하여 7고를 말하며 이를 멸하라 이른다. 하지만, 7고 모두 사회적이다. 혹자는 남녀의 사랑과 이에서 오는 고통을 지극히 개인적이라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이의 사랑도 자본주의 체제가 빛은 소외의 모순과 화폐유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속된 말로 이 체제에서는 사랑이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 사랑의 가치를 교환 가치가 대체하고, 화폐를 향한 욕망이 두 사람의 사랑을 왜곡한다. 인격 대신 연봉을 따져 사람을 선호하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화폐욕망의 달성 여부가 판가름한다.

내 몸과 마음이 괴로운 것은, 어느 광고문구처럼 간 때문이 아니라 그 체제에서 고임으로 시달리고 억압당하며, 그에 몰든 사람들로부터 공격과 비난을 받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통이 사회적이라면, 사회의 개선과 개혁 없이 고통의 소멸은 불가능하다. 개인적 고의 소멸만을 말하는 지금의

한국 불교는 공허할 뿐이다.

모든 고통이 사회적이라는 점과 함께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에 연기론을 결합하여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찰나의 순간에도 서로 조건이 되고 상호작용하는 상호 생성자(inter-becoming)다.

너무 미세해서 느끼지 못하지만, 내 호흡에 영향을 받아 대기의 미생물이 달라지고 그리 변한 대기가 내 몸에 영향을 미치고, 달라진 몸은 달라진 공기를 내뿜으며, 그는 대기를 변화시키고 그를 마시는 내 주변 사람의 몸을 변화시킨다. 동시에, 다른 사람의 호흡 또한 대기와 내 몸을 변화시킨다. 타인은 나와 별개의 사람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이루는 나의 분신이자 구성원이다. 그가 있어서 내가 있고, 그가 없으면 나 또한 없다.

그러니 타인의 고통은 나의 고통에 영향을 주며, 그 역도 성립한다. 타인,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아파하는 그 자리에 부처님께서 자리한다.

아무리 세상이 혼탁해졌어도 인도네시아 참사나 희망버스 때처럼,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대할 때 인류에게 희망은 있다. 그 순간 서 있는 그 발 밑이 바로 도솔천이다.

모든 고통은 사회적이다

社說

전법은 '전도선언' 실천 불자의무

새해를 맞아 불교계 곳곳에서 신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법'을 내세우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월 17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같은 날 조계종 교육원장 현웅 스님이 교육원의 2012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19 일에는 조계종 포교원이 비전과 사업 계획 등을 밝혔다. 이에 앞선 16일 태고종도 연두기자회견을 열었다. 총지종은 17일 신년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진각종은 9~15일 새해대서원불공을 통해 신년계획을 수립했다.

이들 종단·단체의 다짐은 각기 시방세계 곳곳에 모습을 달리해 화현하는 부처님의 모습이나, 중생의 근기에 따른 대가설법과 같다. 그 진심은 전법을 통한 불교정토 구현과 다르지 않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국민의 행복과 평화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겠습니다'란 제하의 연설문을 통해 '사회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고 '국민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거에 대한 평가와 반성 그리고 합리적인 개혁을 위한 최선을 추진할 것이며 한국불교 중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총무원장스님의 연설문은 임기 3년 차를 맞은 조계종 집행부가 지나온 길을 되짚어 보고(자성) 앞으로 나아갈 길을 살펴보는(쇄신) 결사의 실천이었다.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조계종이 내세운 것은 '대중공사' '천일기도' 등이다. 특히 사회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고 '국민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활동으로 시민을 부처님으로 모시는 시민초청 무차대회 등을 기획한 것은 신선하다.

하지만 종단출범 50주년의 해를 기

넘하는 사업을 펼치겠다면서 구체적인 계획조차 내놓지 못한 것에는 아쉬움을 떨칠 수 없다.

조계종 교육원이 기본교육기관 수업의 표준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이버 강좌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이나, 포교원의 SNS를 통한 포교 계획 등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불교도 새롭게 변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수도권에 문화센터 중심으로 전법 활동을 펼치겠다는 것도 불교중흥에 크게 기여하리라 믿는다.

수년째 내용에 휩싸인 태고종도 율해는 승려노후복지시설인 기로원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 총지종이 총복 괴산에 80만평 부지를 활용해 유기농 작물을 재배하고 종합복지타운을 조성해 복지종단으로 거듭나겠다는 발표도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불교연구원 실무시 하는 불교학을 표방하며 학술지(전법학 연구)를 펴낸다고 한다. 우리 시대 포교승으로 도심포교의 기틀을 다진 광덕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창간한 책은 앞으로 전법교화의 지남이 될 것이 분명하다.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결과가 좋을 수 없다. 제불 조사가 성불하는 길을 상세히 남겼음에도 우리가 중생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대만불교가 대중과 호흡할 수 있었던 까닭을 참구하면 율해 한국불교의 화두인 '전법'은 쉽게 해결되리라.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말라. 처음이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도리에 맞고 언설이 정돈된 가르침을 펴라"는 전도선언을 되새기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사부대중 칼럼



남지심
소설가

년 초에 이삿짐을 썼다. 마포에서 6년 정도 머물던 오피스텔을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매일 물건을 정리하고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으며 지내왔기 때문에 내가 머물고 있는 공간은 늘 깨끗하고 필요한 물건들로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며 지내왔다.

그런데 이삿짐을 싸기 위해 사용하던 물건들을 꺼내놓고 보니 삼분의 일은 없어도 무방한 것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늘 닦고 털어서 깨끗하다고 믿었던 공간은 구석구석 먼지로 가득 차 있고, 도저히 만지지 않는 공간까지 머리카락이 흘러 들어가 먼지와 뒤엉켜 있었다.

이삿짐을 싸면서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진지하게 해 봤다. 소중하다고 믿고, 그것을 옮겨줘려 노력했고, 그래서 소유하고 있다고 흐트려했던 것들이 실은 언

제 버려도 무방한 허술풀레기는 아니었을까? 하고 말이다. 그리고 정갈하게 자신을 가꾸기 위해 노력했고, 어느 정도는 그렇게 실천하고 있다고 믿었던 내 자신의 내면이 실은 너무도 흉한 오물로 뒤엉켜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같이.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는 참으로 큰 것 같다. 의식하는 것과 의식하지 못하는 것의 차이는 더 큰 것 같다. 인생을 산다고 할 때 그 삶은 눈에 보이고 의식하는 세계만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산다는 것은 엄숙해 질 수밖에 없다.

나라 안이 참으로 어지럽다. 이렇게 어지럽다고 느끼는 가장 큰 원인은 정치가 혼란스럽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율해는 양대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양상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럴 때 우리 불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나는 언젠가부터 선거야말로 대승보살을 뽑는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개인이 모여 국가를 형성하고, 그 형성된 국가는 통치자에 의해 통치된다. 왕조는 세습제이기 때문에 백성이 끼여들 여지가 없었지만,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이 통치자를 뽑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 얼마든지

훌륭한 지도자를 뽑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을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훌륭한 통치자를 뽑는 일일 것이다. 훌륭한 통치자는 가장 강한 힘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체 생명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발원하는 우리 불자들은 당연히 훌륭한 통치자를 뽑는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통치자 중 한 사람은 인도의 아쇼카 왕이다. 그는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마침내 인도 대륙을 통일했다. 그런 후 전쟁을 통해 무고한 생명을 살생한 자신의 죄과를 괴로워하다가 마침내 불교에 귀의 해 다르마 정치를 현실 속에서 펼쳤다.

그는 가난한 자 외로운 자를 돌봤고, 마을마다 병원을 지어 병든 사람의 고통을 덜어 주었다. 사람이 모여 사는 마을에는 우물을 파서 갈증의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해 주었고, 일정한 장소에 저수지를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배려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한 동물병원을 지어 병든 가족을 돌보게 했고, 전국 곳곳에 사람과 가족을

내 안에 담겨 있는 쓰레기

위해 약초를 재배하게 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 보다 더욱 그를 위대하게 한 것은 백성들이 전리를 실천하도록 배려했다는 것이다. 그는 인간이면 누구나 지켜야 할 보편적인 도덕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바위나 나무에 새겨 놓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독려했다. 인간은 물질의 안정뿐 아니라 정신의 고양에 의해 행복해 질 수 있음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끝없이 도와주었던 것이다.

지금과 같은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아소카 같은 정치 지도자를 만나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두 눈 크게 뜨고 나라를 이끌어 갈 통치자를 찾는다면 적어도 국민을 안락하고 편안하게 해 주고 자 원력을 세운 보살은 만나지 않겠는가?

맹독성 쓰레기는 사람을 죽게 까지 한다. 나라 안에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사람, 자신 안에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사람, 아니 최소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을 청결하게 가꾸어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을 찾도록 하자. 금전 한 해 동안 두 눈 크게 부릅뜨고, 그 단 역시 보살의 행동을 우리 모두가 명심하고 말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일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외사출 연불닷컴 실시간 뉴스 연불뉴스 불교포탈 부디피아 소평을 연불닷컴
www.hyunbul.com www.hyunbulnews.com www.buddhapia.com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대구지사: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062)384-3009 영주지사: (054)634-3429
전북지사: (063)910-8977 부산지사: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천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공정관리 및 그 실현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읽어 낼 수 있는 비법(秘法)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정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 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3 영가천도는 왜 필요 해주어야만 하는가?
4 태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6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제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11215-중-9677호
알츠하이머 치매!
아직도 방치 하십니까?
당신의 건강을 되찾아 드립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는 다년간의 경험으로 알츠하이머성치매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노령사회로 진입하는 21세기 대한민국의 국민적 화두 치매...
행복한 가정을 지키는데 저희 한의원이 꼭 도와 드리겠습니다.
명지한의의원
예약문의 052)261-7502~3
울산 남구 야음2동 459-44 (야음시장 맞은편)
한 의 사 원장스님 홍화 (권대일)